

광주대광로타리클럽 이정만 회장 취임



이정만(55) 세무사가 2일 광주대광로타리클럽 4대 회장에 취임했다. 이 회장은 “클럽 내 실학과 회원 화합, 친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회원 모두가 상생 봉사하는 클럽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대광로타리클럽은 무등산 환경보호와 장애인 단체 지원 등 사회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김경인기자 kki@

곡성군청 김진철씨 '방재의 날' 근정포장



곡성군 김진철 건설과장이 최근 열린 '제18회 방재의 날' 기념식장에서 대통령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김 과장은 지난해 호우피해 지역을 신속하게 복구하는 등 방재분야에 현신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과장은 1975년 공직에 첫 발을 내디딘 후 28년 간 재난재해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kwangju.co.kr

동구 출산장려 표어 공모전 시상



광주시 동구(청장 유태명)는 2일 출산장려 표어 현상공모에 당선된 김영복(36·인천시 부평구 심정동)씨에게 상금 30만원과 상장을 수여하고 동구출산정책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씨는 ‘가정에는 아이 가득 동구에는 희망 가득’이란 표어로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오늘 ‘장한 어머니상’ 시상식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회장 왕성원)가 주관하는 제33회 ‘장한 어머니상’ 시상식이 3일 오전 9시30분 여의도 중앙보훈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국가보훈처가 2일 밝혔다. 이번 시상식에는 박승훈 보훈부장을 비롯해 대한민국사이경회장 등 중앙보훈단체장·유족·수상자 가족 등 20여명이 참석한다.

1979년부터 시작된 장한어머니상은 역경을 딛고 열정과 헌신으로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 타의 귀감이 되는 전몰군경 부인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광주·전남·북 수상자는 ▲김복순(70·광주 남구) ▲최연순(74·나주) ▲이영순(84세·정읍)씨 등 3명이다.

내방

▲조태섭(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홍보팀 부장)씨



“세계인들이 기억하는 ‘5월 광주’ 아카이브 만들 것”

5·18기록물 유네스코 등재추진위 홍세현 위원

“5·18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그 깊은 시간에 집중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시민들이 자진해서 일기며 필름을 기증하고, 광주시와 지역정치권이 앞장섰으며, 시민사회단체들은 유네스코의 지인들을 찾아 일일이 부탁하는 등 등재가 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5·18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추진위원회 홍세현(52) 위원은 지난해 초부터 등재추진단장인 안종철 박사와 함께 등재 신청서 작성부터 자료수집, 주

요인사 접촉에 나섰다. 80년대 후반부터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간사,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기획담당관을 거친 그에게 5·18 기록물은 여러 차례 접하고 봐왔던 문건들이었으며, 이러한 경험은 등재를 추진하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됐다.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솔직 응했습니다. 깊은 시간 안에 적은 인력으로 일을 하다 보니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이제 다 보람으로 남았습니다.”

지난해 등재 추진에 나선지 3개월 만에 광주국제교류센터, 원어민 강사, 지역교수 등에 신청서 작성 및 자문을 부탁해 서둘러 유네스코 본부에 제출했으나 유네스코 등재심사소위원회로부터 보완 요구를 받기도 했다.

“5·18 기록물의 의미를 어떻게 하면 외국인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습니다. 나름의 양식도 있었는데, 처음이라 서툰 부분도 있었죠. 유네스코에서 지시한 대로 신문자료나 작품 등 2차 자료를 제외하고 5·18 기록물을 보존하고 있는 국가기관의 동의서를 받아 다시 제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원로, 교수 등의 도움이 컸습니다.”

일부 보수단체들이 ‘방해 공작’을 폐기 도 했지만 지난달 최종 등재가 결정되면서 흥 위원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고민하고 있다.

유네스코에 약속한 5·18 기록물 아카이브 조성이 가장 큰 과제다.

흥 위원은 “아카이브를 5·18 기록물을 보존·전시·홍보·연구하는 공간으로, 아직도 미흡한 5·18의 전국화·세계화의 중심축으로 만들었으면 한다”며 “입체적이며 상시적인 공간으로 시민들과 외지인들이 언제나 찾아 5·18을 기억해내는 장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어려운 이웃 돋는 ‘착한가게’ 동참하세요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127곳 돌파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도하고 있는 ‘착한가게’가 127곳을 넘어섰다. 이달 들어 유치원, 병원, 음식점, 통신사 대리점 등이 잇따라 매출액의 일부를 매달 기부하겠다고 약정한 덕분에 지난달까지 123곳이던 착한 가게가 4곳이나 늘어난 것이다.

127호점의 주인공은 산간구 월곡동 ‘아띠울영재어린이집’(사진). 원장 조덕자씨는 “주변에도 어려운 어린이들이 많이 살고 있다. 인터넷 카페를 통해 가입 여부를 물었더니 모두 환영하고 좋아했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사이기도 한 조씨는 “평소 아이들에게 어려운 친구와 나누며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며 “보다 많은 가게들이 가입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소 자영업자들이 매달 매출액의 일부를 기부해 어려운 이웃을 돋는 ‘착한가게’ 캠페인은 지난 2009년 5월 시작됐다. 2년이 지났지만 아직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 한 달 평균 적을 때는 4~5곳 많을 때는 10여곳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모금회는 연말까지 200호점을 목표로 캠페인 중이다. 캠



폐인에 가입한 업체들은 매달 최소 3만원 이상을 공동모금회에 기부하겠다는 약정을 통해 이웃을 돋는다. 지난해 ‘착한가게’가 모든 성금은 5000만원이며, 이는 저소득층의 생계비와 의료비 등으로 지원됐다.

‘착한가게’에는 우리나라 대표적 관화기인 이철수씨의 재능기부로 만든 ‘착한 어린이집’ ‘착한 병원’ 등의 협판이 부착되고, 모금회 홈페이지와 사보 등을 통해 홍보된다.

가입문의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062-222-3566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정율성 선생 부인
당수에 승 여사 별세

광주에서 태어나 중국 3대 음악가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정율성(鄭律成·1914~1976년) 선생의 부인 당수에 승(丁雪松) 여사는 지난달 29일 별세했다.享年 93세.

중국 최초의 여성 대사인 고인은 네덜란드와 덴마크 대사를 역임했다. 한족인 고인은 지난 1941년 중국에서 정율성을 선생을 만나 결혼했다.

고인의 빈소는 중국 베이징 베이징 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3일 오전 9시다. 장지는 중국의 국립묘지인 베이징 팔보산 혜명공묘다.

한편, 중국 성도시와 경제교류 협력을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4박 6일의 일정으로 중국 출장길에 오른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은 2일 남구 공무원들과 함께 고인의 빈소를 찾아가 조문했다.

/김경인기자 kimho@

355복합지구 총재협 전남체육회에 장학금



국제아이온스협회 355복합지구 총재협의회(의장 박육천)는 지난 1일 전남도청에서 전남도체육회장인 박준영 도지사에게 500만원의 ‘전남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을 기탁했다.〈전남체육회 제공〉

목포대 성희룡 예방 캠페인



목포대(총장 고석규)가 2일 설치한 성희룡 예방 캠페인을 위한 펠트막에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적어놓고 있다. 캠페인은 오는 10일까지 계속된다.

〈목포대 제공〉

동신대-中절강과기대 예비 디자이너 공동 패션쇼



한국과 중국 학생들이 직접 디자인한 의상과 액세서리가 공동 패션쇼 런웨이 무대를 장식했다.

동신대학교 의상디자인과·보석공학과·귀금속 세공학과와 나주 천연염색산업육성사업단, 중국절강과학기술대학 의상디자인학과는 2일 오후 3시와 7시 두 차례에 걸쳐 동신대 국제회의장에서 패션쇼 형태의 제2회 공동 작품발표회를 개최했다.

동신대 학생들은 코리아니즈(Koreanism), 코스프레(Costume Play), 에코(Eco)를 주제로 한국 전통의 이름다ulp과 현대의 밸랄발, 친환경 이미지가 조화를 이룬 의상 30벌과 주얼리 16점을 선보여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중국 절강과학기술대학 학생들은 ‘Cloth - Cross,

의상-초월하다’라는 주제 아래 일상적인 의상 개념을 초월한 새로운 디자인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의상 30벌을 무대에 올려 박수를 받았다.

〈채희종기자 chae@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오늘 ‘장한 어머니상’ 시상식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회장 왕성원)가 주관하는 제33회 ‘장한 어머니상’ 시상식이 3일 오전 9시30분 여의도 중앙보훈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국가보훈처가 2일 밝혔다. 이번 시상식에는 박승훈 보훈부장을 비롯해 대한민국사이경회장 등 중앙보훈단체장·유족·수상자 가족 등 20여명이 참석한다.

1979년부터 시작된 장한어머니상은 역경을 딛고 열정과 헌신으로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 타의 귀감이 되는 전몰군경 부인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광주·전남·북 수상자는 ▲김복순(70·광주 남구) ▲최연순(74·나주) ▲이영순(84세·정읍)씨 등 3명이다.



“일곱살 기남이에게 새생명을 ...”

무등육아원, 내달 14일 선천성 질환 원아 돋기 콘서트

선 천 성
질 환 으로

힘겨운 투병을 이어가고 있는 어린이의 수술비 마련을 위해 기적 만들기 콘서트가 열린다.

광주 무등육아원은 다음달 14일 오후 7시 광주 5·18 기념문화센터 민주홀에서 ‘천인의 기적’ 콘서트를 연다. 이 콘서트는 육아원에서 지내는 정기남(7군)의 간 이식 수술과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한 행사를다.

정군은 부모의 이혼으로 조부모 손에서 자라다가 지난해 10월 혼자 살기로 했다.

들과 떨어져 육아원에 입소했다.

정군의 병은 선천적 담도폐쇄증. 생후 1개월도 되지 않은 지난 2004년 12월 수술을 받았고 현재도 심한 간경화로 복수, 비장비대, 정맥류가 동반돼 간 이식 수술이 시급하다.

하지만 간 이식부터 퇴원, 간 기증자의 입원치료비, 수술 후 검사와 치료비까지 고려하면 1억원은 특히 필요한 상황이다. 고신 과에 육아원은 자선행사로 기금을 모으기로 하고, 인맥을 총동원해 콘서트를 열기로 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콘서트에는 힙합 듀오 지뉴선의

선, 드러머 박상열, CCM(기독교 대중음악) 가수 이은혜 등이 나와

정군을 응원할 예정이다. 입장권 판매 등 수익금과 기부금 전액은 정군 치료비로 쓰인다.

육아원 관계자는 2일 “1000명 관객이 한자리에 모여 기남이의 치료비 마련은 물론, 힘든 치료과정에 따른 어려움을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후원 및 공연 문의 무등육아원 062-222-3762.

온라인으로도 지원을 받았다.

온라인으로도 지원을 받